



1.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-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-
 2.우리주 사랑 안에 사네 - 주우릴 하나로 회복했네 -
 3.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- 얼마나 좋고 또 즐거운가 -



이 모든 인간고통 두려움 뿐 - 그 지겨움 끝 없네
 한 집에서 사는 우리 형제 자매 - 아버지 와 아들 이
 달콤한 기쁨 부음이 슬 처럼 - 우리 위에 내리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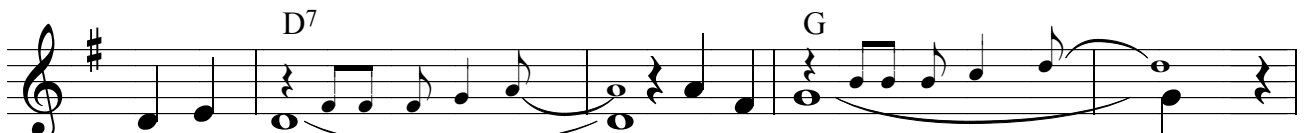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주여 기계시니 우리가
 하나이 주듯 우린 하날 세
 생명 호흡 향상 새롭다



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되 우리가



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되



하 날 세 (우리모두다) - 하 날 세 (우리모두다)



하 날 세 (우리모두다) 하 날 세 - -